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0호 (2024.05.24)

## ■ 이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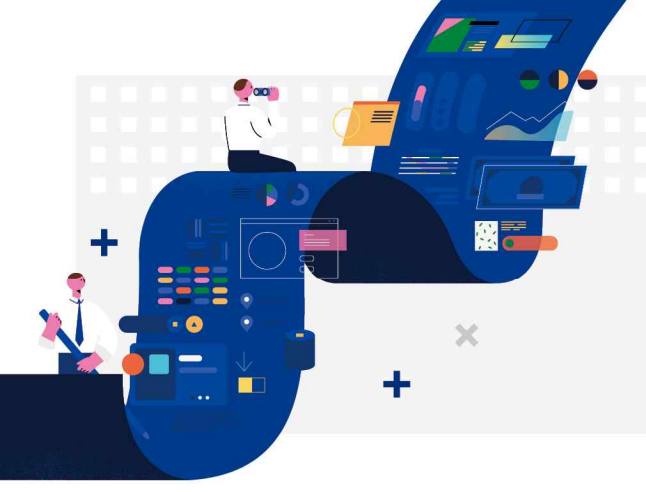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경제) 2024년 상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인천시 영향 점검

##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 국내 정책동향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0호 (2024.05.24)

## Cotents

### I. 이 슈

(경제) 2024년 상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인천시 영향 점검 ..... 1

###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 10

### III. 국내 정책동향

(주거) 산업부, 노후 아파트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홈 패키지’ 지원 ..... 11

(경제) 매월 둘째 주 주말마다 전통시장 제철 농산물 할인 판매 ..... 11

(창업) 지역 창업생태계 자생을 위한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추진 ..... 12

(교육) AI 교과서 본격 도입을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추진 ..... 12

(산업) 특구 내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시행 ..... 13

(창업)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창업-BuS’ 시범 운영 시작 13

(복지) 14개 시도,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14

(교육) 산업부, 첨단산업 고급인재 양성에 '24년 2,468억 투자 ..... 14

####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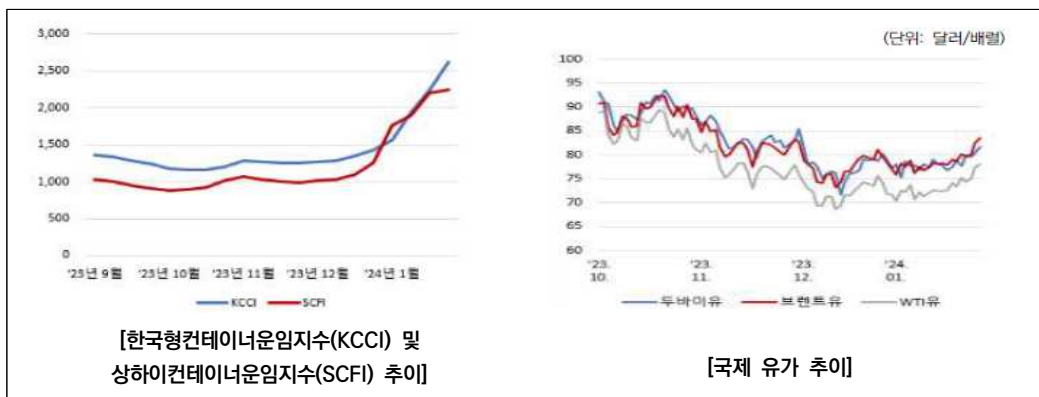
## 2024년 상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인천시 영향 점검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 #인천시 영향 #대응

- 2024년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분쟁과 금리 격차 등 대외 불안정 요인과 고금리·고물가·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적인 불안정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잔존
  -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IT 경기 회복세 △미국 경기 호조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한국은행(2024.04)은 완만한 소비회복세와 더불어 반도체 경기 상승, 미국 경기 호조 등에 힘입은 수출 증가세로 인해 국내 경제의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금리 격차와 국내 고금리 및 고물가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국내 경제주체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지정학적 분쟁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는 △원유 수급 및 가격 △수출 물류 지연 및 비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책 발표 및 정부 비축 농·축·수산물 공급 등 투자 및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
  -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불안정 요인과 인천시 경제 여건을 살펴보고, 지역 경기 개선 및 성장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 **(지정학적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 △물류비용 증가 △물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23년 10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 사회에서는 지정학적 분쟁의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분쟁이 보다 장기화되고 확전될 조짐이 공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종전을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가 오는 6월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불참 의사를 밝혀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역시 휴전과 관련한 협상도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지적 분쟁의 장기화에 따라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역내 친이란 세력이 참전하여 전쟁이 격화될 조짐

-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유가 상승 가능성 △물류비용 증가 △물류 지연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sup>1)</sup>
-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아직 실질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앞서 발생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對중동 원유 수입 비중을 증가<sup>2)</sup> 시켜왔기 때문에 중동지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가 존재
-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시 원유 생산 및 원유 수송 차질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상승하여 국내 물가상승 압력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중동지역에서의 분쟁이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해역을 지나는 국제 무역선의 운행 경로 및 횡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sup>3)</sup>, △수송 거리 연장 △보험료 △기타 비용 등으로 인한 해운 운임(물류비용) 상승과 물류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02) 참고 및 재구성

\* 주 : KCCI는 1월 22일, SCFI는 1월 19일까지 수치이며, 국제유가의 2024년 1월은 자료 검색일(24.01.28)까지의 수치

[그림 1] 컨테이너운임지수 및 국제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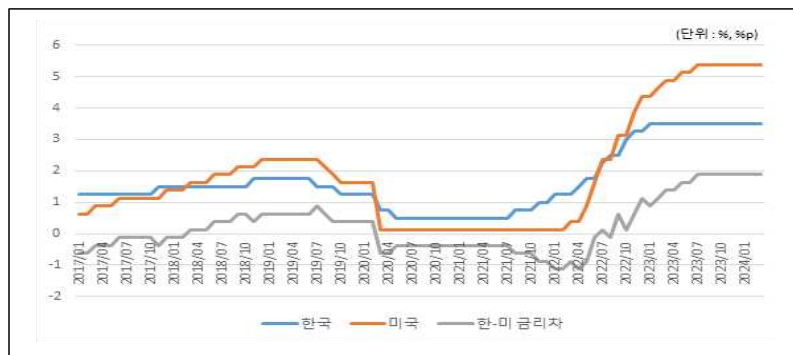
- **(금리차 장기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22년 7월 이후 한미금리 수준이 역전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과거에는 낮은 수준의 금리 차이로 단기간에 그쳤던 반면, 최근에는 1.875~2.000%p의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되며 △국내 물가 부담 확대 △환율 변동성 증가 △자본유출 우려 등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
-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위험 등으로 인하여 2023년 들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며 '24년 3월 기준 3.5%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견조한 자국 경제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5.25~5.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후 '23년 7월부터 해당 수준에서 동결<sup>4)</sup>

1) 중동분쟁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한 산업연구원(2023.10)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02)에 따르면 전쟁 초기 종식 시 국제 유가의 낮은 상승 폭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국내 무역 규모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쟁 확산 시 △국제 유가 배럴당 50~67달러 상승 △연내 대규모 프로젝트 차질 △에너지 수급 불안정 △국내기업 해외수주 위축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2) 2023년 1분기 기준 총 원유 수입의 약 70.2%, 산업연구원(2023.10) 재인용.

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홍해 및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이 이란 및 친이란계열 무장 단체에 의해 나포되거나 공격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글로벌 선사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는 경우가 증가.

- 미국이 인플레이션 등 경기 호조세 지속으로 당분간 긴축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 약세 역시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내 가계와 원·부자재 수입·가공 기업의 비용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엔화·위안화 등 동아시아 국가 화폐가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 중이며,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는 중국에서 초저가 수출에 나서고 있어 국내 제조·수출기업의 경영난 심화가 우려
- 대내외 금리 수준 역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변동성 및 해외 투자자의 자본유출 우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한미 금리차로 인한 현재의 원-달러 환율 장기화 및 추가적인 상승은 수출기업 매출 확대를 통한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수입 재화 가격(생산비용) 상승으로 기업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 수익·리스크 변화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한국의 신용 등급 및 주요국의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대내외 금리 차에 따른 국내 주식·채권시장의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투자자 및 수출기업의 환헤지 비용이 발생·증가하는 등 국내 경제주체들의 외화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sup>5)</sup>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주 : 미국 금리 수준은 결정된 기준금리의 중앙값을 표시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및 금리 격차

-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미 연준의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 가계 및 기업은 3高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시 경기는 하방 압력이 여전히 잔재
- '24년 하반기는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대출 연체 증가 △소비심리 위축 △기업투자 부진 △생산·수출 경기 등의 요인이 인천시 가계 및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최근 글로벌 경기는 지정학적 불안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국내 경기가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반등한다 해도 고금리, 고물가 등 내수 경기 회복의 장애물이 존재하여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회복세의 실제 체감 여부가 부문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

4) 최근 미 연준과 한국은행은 모두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23년 하반기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24년 하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금리 역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5) 자본시장연구원(2023.07), 국제금융센터(2023.07), 자본시장연구원(2023.12) 등 참고 및 재구성.

- **(인천경제 흐름)** '24년 2월 기준 인천지역은 제조업의 생산·수출 호조와 함께 △금융기관 여신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지수 개선 등 가계부문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물가내수 △부채 △기업투자 △생산·수출 등의 경로를 통해 인천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물가·내수)** 고금리에 더불어 유가 및 농식품 등 가계의 생활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됨에 따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 약화와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sup>6)</sup>이 더딤지며 지역 경제 둔화 예상
  - '24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113.94로 '23년 8월 이후 3%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역시 '23년 7월을 기준으로 상승 반전하는 등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
  - '24년 1분기 기준 인천시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한 95.2를 기록하였으나,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준에서 보합세
- **(연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 2월 기준 전국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전년동월대비 0.15%p 상승한 0.51%(기업대출 0.59%, 가계대출 0.42%), 인천시는 전년동월대비 0.07%p 상승한 0.28%(기업대출 0.32%, 가계대출 0.24%) 수준을 기록하며 2022년 하반기 이후 국내 부채<sup>7)</sup>의 연체율이 상승<sup>8)</sup>
  - 한국은행(2023.12)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 연체율은 채무상환 부담이 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수 및 취약차주 보유 대출이 전체 차주 및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신용 위험이 증가<sup>9)</sup>
  - 기업 부문 역시 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저하와 이자지급능력 약화 등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sup>10)</sup>
- **(투자)** 국내 설비투자는 2024년 들어 반도체 및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이 불확실하고, 건설투자의 경우 선행지표의 전반적인 부진과 건설 비용 증가로 인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설비투자자수 증감률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글로벌 IT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섬에 따라 '24년 설비투자 역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고금리·경기부진 등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약화로 인해 전망이 불확실
  - 건설산업은 △기차공물량 소진('23년~) △착공면적(건설선행지표)의 감소 지속 등과 더불어, △고금리 △원자재 가격 △부동산PF 부실화 등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 둔화가 예상<sup>11)</sup>

6) 금융연구원(2023.11)에 따르면 30일 이상 연체경험이 있는 한계차주의 경우 연체가 해소된 직후 1분기 중의 소비수준이 평균 대비 26%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4분기가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평균 대비 18%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또한 연체가 1분기(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소비의 회복이 더욱 더디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7) 국내 가계신용은 2023년 4분기 말 기준 1,886.4조 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전기대비 0.4% 증가하며 다소 주춤했던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대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5.1%, 전기대비 0.7% 증가한 1,889.6조 원 수준. 인천시 가계대출은 2024년 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한 67.4조 원으로 '23년 11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대출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한 80.7조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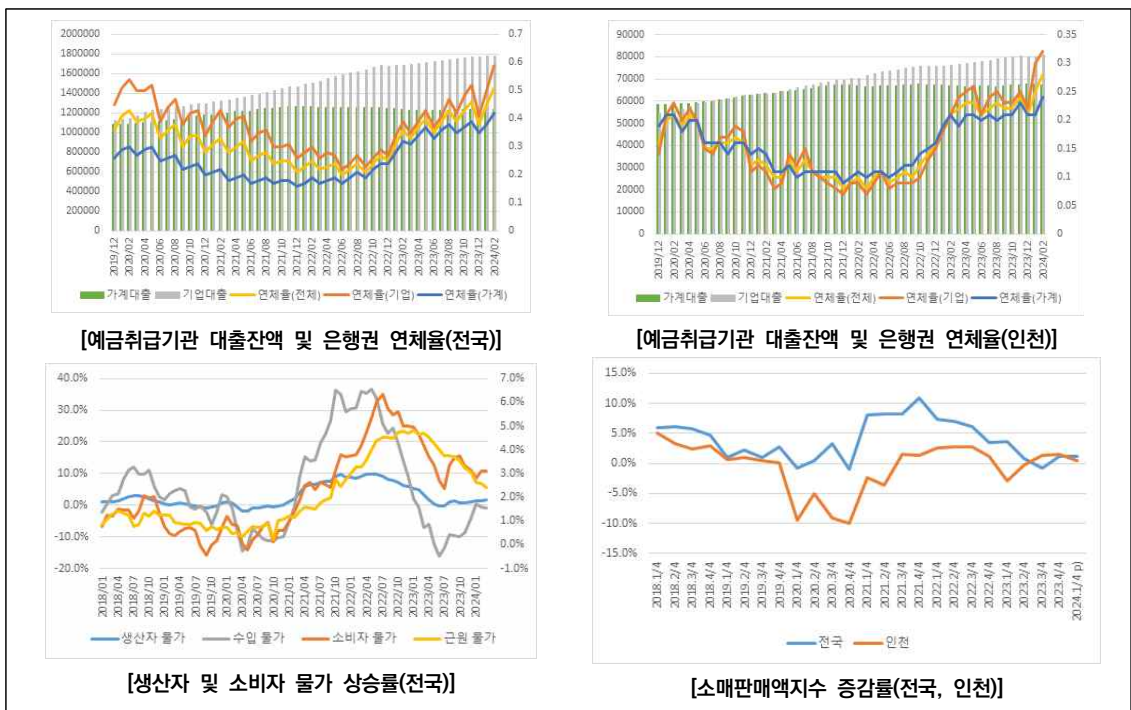
8) 은행대출금 연체율의 분기 평균값을 활용하였음.

9) 취약차주 비중은 취약차주 수 기준 '23년 1분기 말 6.3%에서 '23년 3분기 말 6.5%로 증가하였으며,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23년 1분기 말 5.1%에서 '23년 3분기 말 5.2%로 증가(한국은행, 2023.12).

10) 산업연구원(2024.02)에 따르면 제조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3.3%(2022년 실제)에서 4.7%(2023년 예상)로 상승했을 경우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2.5배(2022년 실제)에서 1.9배(2023년 예상)로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부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가전 등이 위험산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

11) 2024년 3월 기준 인천의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약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건설경기 부진으로 착공 면적이 감소세를 보였던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수출) '24년 3월 기준 전국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를 기록해 연속 6개월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 수출 역시 전국 추세와 동일하게 '23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상승
- 2024년 3월 기준 인천시 수출액은 488.0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한 503.9천만 달러를 기록<sup>12)</sup>
-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및 반도체 경기 저점 통과 등으로 향후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들의 체감경기 회복은 지연될 전망
- '22년 5~6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가 '23년 7월부터 다시 증가세(감소폭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흐름 차별화 △환율 변동성 증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교역 여건 및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참고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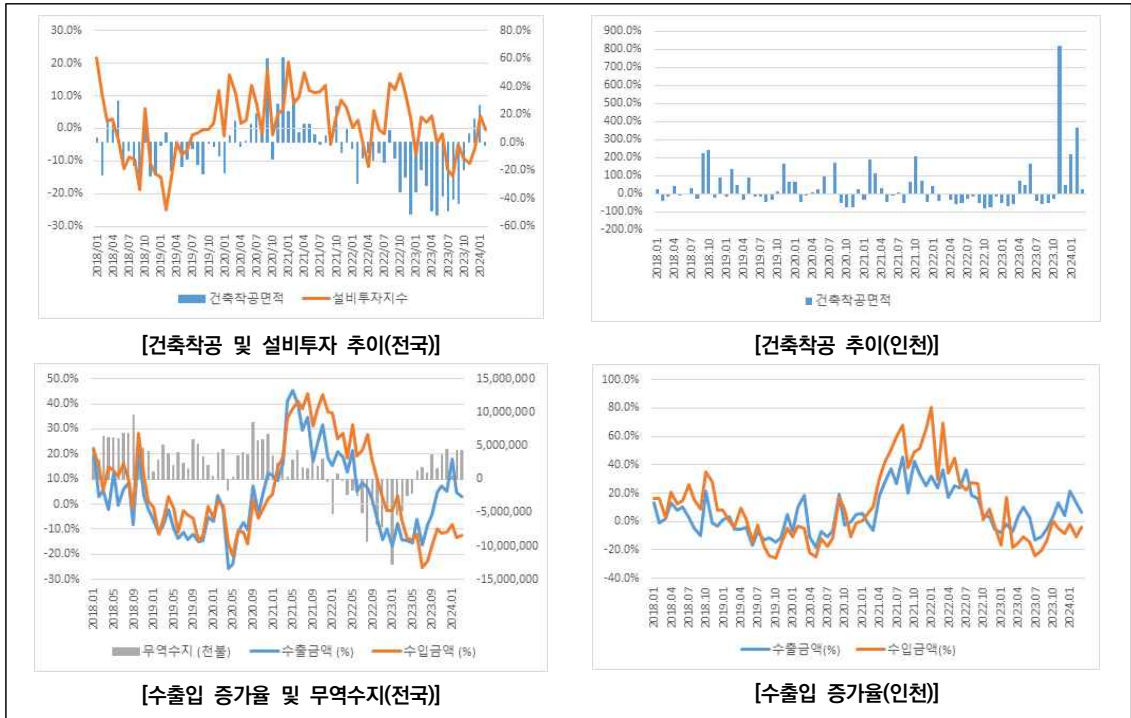
\* 주1 : 대출 잔액 및 연체율은 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잔액(말잔)과 예금은행 연체율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우측은 대출잔액(십억원), 좌측은 연체율(%)을 의미

2 :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 지수의 전년동월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생산자 및 수입물가 상승률(%), 우측은 소비자 및 근원물가 상승률(%)을 의미

3 : 소매판매액지수 그래프는 전년동분기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그림 3] 대출(연체), 물가 및 내수 추이

12) 수출이 증가 전환함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수출액 증가보다는 수입액이 전년동월대비 12.3%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전국 그래프 좌측은 설비투자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우측은 건축착공면적의 전년동월비 증감률(%)을 의미하며, 인천 건축착공 추이는 전년동월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작성  
2 : 수출입 추이 그래프의 좌측은 수출입 금액 증감률(%)을, 우측은 무역수지(천 달러)를 의미

[그림 4] 기업투자 및 수출 경기

- 인천시 경기는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추세이므로 지속되는 대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해 관내 가계 및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관내 소매판매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및 물류(수출)·수입 기업 관련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인천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연체 △건설투자 △수출 등 부문에서 전국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나, 대내외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만큼 관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인천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연체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 금리인하 시기 연기 △지정학적 분쟁 지속 △건설 자금 유동성 확보 어려움 등의 요인이 지역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외 요건 및 관내 경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
- 관내 소매판매 지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지출 전망도 소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인천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시·군·구 발행 지자체 상품권, 전통시장 할인행사 지원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강화시켜 관내 소비를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
- 한편 관내 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며 외적으로는 지역 경기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이나 △고환율(원자재 가격) △유가 상승 △물류 등으로 인해 원·부자재를 수입·가공 하는 기업 및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저리대출, 수출입 보증료 지원 등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

## 제조 &gt;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 2024년 4월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은 전반적인 수출 경기 회복에 따라 지난 '23년 11월 이후 수출 증가세를 유지<sup>13)</sup>
- 화장품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6.1% 증가한 855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연속 11개월째 수출액 증가세가 지속
    - 중국으로의 수출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일본, 아세안, 중동 등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 전략이 성공하며, 화장품 수출액이 중성장이 유지
  - 바이오헬스 부문은 △바이오시밀러 모델 출시 △국내 위탁생산(CMO) 능력 확대 △신규 위탁생산(CMO) 계약 수주 등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수출 여건 개선으로 6개월째 수출 증가세
    - 바이오헬스 부문의 4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1.4% 증가, 전월대비 5.6% 감소한 1,244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등락을 반복하여 성장
    - 의약품 수출 역시 전년동월대비 29.9% 증가한 79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바이오헬스와 더불어 6개월 연속 증가

[표 1]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

| 구분             | '23.09           | '23.10          | '23.11          | '23.12         | '24.01         | '24.02         | '24.03          | '24.04          |
|----------------|------------------|-----------------|-----------------|----------------|----------------|----------------|-----------------|-----------------|
| 화장품<br>(증감률)   | 825<br>(11.6)    | 763<br>(10.7)   | 771<br>(20.8)   | 697<br>(17.3)  | 797<br>(70.7)  | 718<br>(11.1)  | 779<br>(0.8)    | 855<br>(26.1)   |
| 바이오헬스<br>(증감률) | 1,123<br>(-15.1) | 1,043<br>(-1.6) | 1,214<br>(18.8) | 1,299<br>(4.3) | 1,151<br>(3.3) | 1,165<br>(9.2) | 1,318<br>(10.0) | 1,244<br>(21.4) |
| 의약품<br>(증감률)   | 672<br>(-20.9)   | 627<br>(-1.7)   | 708<br>(26.4)   | 783<br>(8.6)   | 718<br>(6.4)   | 734<br>(21.7)  | 825<br>(12.9)   | 796<br>(29.9)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4.05.01)'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3)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4.05.01)'.

- **(전국)**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경기는 부문별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출 개선세가 지속
  - **(생산지수)** 2024년 3월 국내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90 전후를 유지하며 생산 경기가 저조한 가운데, 의약품 생산 경기는 호조세
    - 화장품 관련 전국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8.3% 증가, 전년동월대비 6.1% 감소한 89.0으로, '22년 6월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진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
    -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2.8%,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한 149.4로, 경기 호조세가 지속
  - **(품목별 수출액)** 2024년 4월 바이오산업은 전반적으로 수출 개선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특히 화장품 부문의 실적이 크게 증가
    -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6.0%, 전월대비 10.0% 증가하며 연속 11개월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타 화장품 수출액 역시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각 32.3%, 11.4% 증가
    - 의약품 수출액은 '23년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상승세가 유지되며, 4월에는 전월대비 3.6% 감소, 전년동월대비 30.0% 증가
- **(인천)** 인천시의 바이오산업은 전국 추세와 다르게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 모두 양호한 성장세
  - **(생산지수)** 2024년 3월 기준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한 111.7,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8% 증가한 275.4를 기록하며 바이오 생산 경기 호조세 지속
  - **(품목별 수출액)** 2024년 4월 인천지역 화장품 및 의약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타 화장품의 경우 큰 폭의 등락을 반복
    - 화장품 수출은 전월대비 7.2%,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상승세가 다소 약화했으며, 기타 화장품은 전월대비 374.2%, 전년동월대비 182.7% 증가하는 등 다소 큰 폭의 증감을 유지
    - 의약품 수출액은 '23년 8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4월 전월대비 9.0%, 전년동월대비 42.1% 증가한 약 484.4백억 달러를 기록

[표 2]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 지역 | 항목          | '23.12 | '24.01 | '24.02<br>(p) | '24.03<br>(p) | '23.03 | 전월비<br>(%) | 전년<br>동월비<br>(%) |
|----|-------------|--------|--------|---------------|---------------|--------|------------|------------------|
| 전국 | 화학물질 등 제조업  | 89.5   | 91.8   | 82.2          | 89.0          | 94.8   | 8.3        | -6.1             |
|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78.9   | 78.6   | 71.5          | 77.2          | 82.3   | 8.0        | -6.2             |
|    | 의약품 제조업     | 125.2  | 137.7  | 132.4         | 149.4         | 134.8  | 12.8       | 10.8             |
| 인천 | 화학물질 등 제조업  | 101.5  | 113.2  | 106.7         | 111.7         | 114.9  | 4.7        | -2.8             |
|    | 의약품 제조업     | 118.8  | 156.4  | 212.2         | 275.4         | 142.8  | 92.9       | 29.8             |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화학품(MT12273)]



[기타 화학품(MT12279)]



[의약품(MT1226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바이오 품목별 수출 동향(2024.04)

## [ 부록 ]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4.04 잠정)

(단위 : 십만\$, %)

|         | 전국      |      |         |      |        | 인천     |       |        |      |       |
|---------|---------|------|---------|------|--------|--------|-------|--------|------|-------|
|         | 수입      |      | 수출      |      | 수지     | 수입     |       | 수출     |      | 수지    |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 반도체     | 100,283 | 11.7 | 155,996 | 31.4 | 55,712 | 18,602 | 62.9  | 18,372 | 34.9 | -230  |
| 자동차     | 18,852  | -9.2 | 85,450  | 6.8  | 66,598 | 1,124  | -28.1 | 6,835  | -4.2 | 5,711 |
| 기계장비    | 54,797  | -7.0 | 66,778  | 18.5 | 11,981 | 5,678  | 39.5  | 5,633  | 16.8 | -45   |
| 바이오-의약  | 8,101   | 10.0 | 6,628   | 32.9 | -1,473 | 1,001  | 60.7  | 4,845  | 43.1 | 3,844 |
| 바이오-화장품 | 1,814   | 6.3  | 8,263   | 24.8 | 6,448  | 26     | 36.5  | 1,455  | 9.9  | 1,429 |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 주거 > 산업부, 노후 아파트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홈 패키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 수요 대비 및 노후 아파트 안전을 위한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노후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그린홈 패키지’를 추진
  - ‘그린홈 패키지’ 사업은 준공 2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력 및 냉·난방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부 산하 각 기관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200개 단지를 우선 지원한 후 점차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
  - 사업 안내 및 단지 선정 등 지원사업의 추진은 에너지공단과 에너지 효율·안전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전국 노후 아파트 단지 중 에너지 효율 및 안전에 투자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단지 노후도 및 정전 발생 이력 등 안전 항목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
    - 이 외에도 △기관·사업별 추진 일정 조율 △연계 사업 홍보자료 제작·배포 △지원사업 안내 및 희망 사업 신청 등 현장 지원창구 운영 역시 협의체를 통해 진행될 예정

## 경제 > 매월 둘째 주 주말마다 전통시장 제철 농산물 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이루어졌던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적·정기적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중기부는 5월부터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에 해당하는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설정하여, 전국 2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
    - 수도권에서는 △신영시장(서울 양천) △남구로시장(서울 구로) △가좌시장(인천 서구) △계산시장(인천 계양) △부천중동사랑시장(경기 부천) △성남야탑시장(경기 성남) 등 6곳이 대상 시장으로 포함되었으며 광역지자체별 1~2개의 대상 시장이 금번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정
  - 금번 지원 추진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국 25개 전통시장에서 매월 제철 농산물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을 예정으로, 할인판매 업체 정보는 각 전통시장 입구의 행사 입간판에서 확인 가능

#기획재정부

- 정부는 수도권과 비교해 자생력이 부족한 지역 창업생태계의 기업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정부는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에서의 창업과 기업 성장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3+1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성장지원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계획
  - 성장지원 서비스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로, △투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보육(엑셀러레이터) △전문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지적재산권 등)를 포함하는 개념

| 추진전략                  | 과제                                                                                                                                                     |
|-----------------------|--------------------------------------------------------------------------------------------------------------------------------------------------------|
|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보육 전문기업 펀드 결성/실적·경력 쌓기 및 보육 전문기업 투자금 회수 지원</li> <li>• 투자·보육 전문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강화</li> </ul>                 |
| 전문서비스 경쟁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및 바우처사업 등 참여 우대</li> <li>• 전문서비스 공급기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li> </ul>                             |
|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및 특수분류 개발 추진</li> <li>• 창업지원기관의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기능 강화</li> </ul>                              |
|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 확대 및 지역 금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지원 촉진</li> <li>• 민간 벤처투자·보육 프로그램의 지역 설립 유도 및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 개최</li> </ul> |

#교육부

-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하여, 올해 9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의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을 발표
  - \* 디지털 인프라란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의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의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
  - 금번 계획은 학교의 물적·인적 디지털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종합계획으로 ①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 개선 ②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③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전담인력 지원 ④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
  -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및 추가 지원하는 한편 AI 교과서 수업 과정에 따른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학교 내 네트워크 최적화 및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
  - 또한 개별학교의 디지털튜터 및 권역별 테크매니저 배정을 통해 기존 교직원의 디지털 인프라 업무를 경감하고,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인프라 관련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체계를 강화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단지 내의 효율적인 공간(토지) 이용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표

-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 결과로, △경미한 특구 변경 절차 간소화 △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

| 구분                              | 개정 이전                               | 개정 이후                                                          | 시행 일자     |
|---------------------------------|-------------------------------------|----------------------------------------------------------------|-----------|
| 특구 변경<br>절차 간소화<br>(시행령 6조의2)   | -                                   | 특구 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의 면적·위치·경계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생략 | '24.05.14 |
| 국토계획법<br>특례 추가 완화<br>(시행령 제37조) |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br>건폐율 30%, 용적률 150% |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br>건폐율 40%, 용적률 200% 완화                         | '24.08.15 |
| 허용건축물 완화<br>(시행령 별표 1)          | -                                   |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 내 금융업소,<br>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체육 관련 시설 추가              | '24.05.14 |
|                                 | -                                   | 산업육성 구역 내 데이터센터 추가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부터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발굴·초기 투자·성장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BuS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란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를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유망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을 발굴 및 성장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①연중 상시 ②초기-후속 투자 연계 ③맞춤형 기술 육성(엑셀러레이팅) 지원 등이 특징
  - 동 프로그램은 연초에 신청·선정 해오던 기존의 창업지원사업과 다르게 매주 각 센터에서 열리는 소형 발표회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을 연중·상시 지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 생태계에 맞춰 △3개월 이내 직접초기투자(센터 등) △6개월 이내 TIPS 연계 △12개월 이내 후속 투자 연계를 지원할 계획
  - 또한 창업기업이 바이오·의료기기·AI·에너지 등 전국 센터의 딥테크 분야별 기술 기반 육성(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의 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
- 창업-BuS 프로그램은 '24년 5월부터 △인천 △경기 △충북 △울산 △광주 등 5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25년에는 동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

## 복지 > 14개 시도,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주(主)돌봄자의 부재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4년부터 14개 시도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돌봄자의 부재·질병·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동 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타 서비스 이용자 제외)이 확인된 대상은 누구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
  - 또한 인당 월 72시간, 하루 8시간 이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최대 3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화
- 복지부는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 대구, 세종 등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우선 시행한 이후, 현장 수요 및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역량에 따라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교육 > 산업부, 첨단산업 고급인재 양성에 '24년 2,468억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 과정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을 통해 첨단산업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및 기관을 선정·발표
- 산업부는 국내 40개 대학 및 14개 기관이 참여한 금번 사업의 3개 분야 과제를 통해 약 2,000명의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 관련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향후 약 2,468억 원을 투입할 계획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하는 특성화대학원의 경우, △반도체(3) △배터리(3) △바이오(1) △디스플레이(1) 분야에 경북대·포항공대·한양대 등 8개교가 선정되어,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을 통해 향후 5년간 920여 명 양성을 목표
- 로봇·AI·미래차·섬유 등의 석·박사 전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13개의 산업계-대학 컨소시엄별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하여, 5년간 약 750명 내외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배출할 예정
- 해외 연계 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하고, 각 대학은 평균 23억 원의 지원을 통해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
- 자세한 사업 분야별 선정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 참고 자료

- 한국은행, “경제상황 평가(2024.04월)”, 2024.04.12.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02.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체감경기 회복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 경제주평, 2024.01.26.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4년 경제, 순환적 반등 vs 구조적 둔화」, 하나Knowledge+, 2024.01.05.
- 산업연구원, 「2024년 경제·산업 전망」, 2023.11.20.
-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경제전망 | 수정」, 2024.02.
- 산업연구원,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01.25.
- 산업연구원, 「이-팔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 가능성과 국내 산업 영향 및 시사점」, 2023.1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동 분쟁 확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2024.02.02.
- 국제금융센터, 「중동 사태 및 국제 유가 동향」, 2024.04.16.
- 산업연구원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대응 방향」, 2024.03.20.
- 한겨레, “강달러·고유가에 4월 수입물가 급등...민생 물가고 예고편”, 2024.05.14.
- 국제금융센터, 「한-미 금리 역전 심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 점검」, 2023.07.27.
- 자본시장연구원, 「한-미간 금리차 역전 현상 및 영향에 대한 소고」, 2023.07.10.
- 자본시장연구원,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환헤지 비용의 증가와 시사점」, 2023.12.18.
-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기준금리차 변화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3.09.22.
- 한국은행,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 2022.07.29.
- 한국금융연구원, 「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 2023.11.24.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3.12.
- 산업연구원, 「고금리가 제조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4.02.21.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24.03.
- 한국은행 인천본부, “2024년 4월 인천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2024.04.25.
- 한국은행 인천본부, “2024년 4월 인천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24.04.24.
- 한국은행 인천본부, “코로나19 이후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및 특징”, 2024.04.29.
- 한국은행 인천본부, “최근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 2024.04.03.
- 경기일보, “건설경기 침체 바람에...인천 중견기업도 ‘맥없이 휘청’”, 2024.05.04.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국 200개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설비 교체...안전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4.05.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제철 농산물 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 2024.05.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 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 공급”, 기획재정부, 2024.05.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시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학교 인프라 개선에 963억 투입”, 교육부, 2024.05.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구개발특구 내 시설 건폐율 완화…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창업 버스(BuS)’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2024.05.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2024.05.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2024.05.20.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0호(2024.05.24)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05월 24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http://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